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1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섣다운 불확실성에도, M7 실적 기대감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6일(월) 미국 증시는 연방정부 섣다운 불확실성, 경쟁 심화 우려에 따른 엔비디아(-0.6%), 마이크론(-2.6%) 등 주요 반도체주 약세도, 주 중반 이후 예정된 MS(+0.9%), 애플(+3.0%) 등 M7 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강세(다우 +0.6%, S&P500 +0.5%, 나스닥 +0.4%).

지난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미네소타 총격 사건이 정치적인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의 이민 예산 반대로 섣다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폴리마켓상 1월 31일 연방정부 섣다운 확률은 76%로 급등). 그러나 시장은 과거 20차례 넘게 반복됐던 섣다운 경험을 통해 내성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최근 섣다운 기간이었던 25년 10월 1일~11월 12일 동안 코스피(+21.2%), S&P500(+2.4%), 나스닥(+3.3%), 등 대부분 증시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또 지금은 미국의 M7, 국내 반도체 등 주도주들의 4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보다는 실적을 주가에 반영해 가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pt 도달에 대한 단기 부담감, 미국 섣다운 및 이란발 불확실성에도, 코스닥이 정부 정책 기대감에 7%대 폭등한 여파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7.1%).

금일에는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세 진정, 실적시즌 기대감 등 상방 요인과 트럼프발 불확실성 재확대, 코스닥 폭등 이후 차익실현 물량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장중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전망.

한국시간 오전7시경 트럼프는 본인의 SNS를 통해 한국이 10월이 합의한 무역협정을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포함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발표한 상황(국내 정부는 MOU 형태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없다는 입장이나, 야당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사안이기에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입장. 이는 금일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시 전반에 걸쳐 부담요인이 되겠지만, 국회 승인 이슈는 시간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 시, 이번 트럼프 상호관세 재인상은 증시 추세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치는 노이즈성 재료로 접근.

전일 코스닥 7%대 폭등의 표면적인 배경은 정책 기대감에서 기인.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비공식 오찬 간담회에서 코스닥 3,000pt 달성 제안 소식이 나왔으며,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유동성 공급, 좀비기업 신속 퇴출, AI 및 우주 등 핵심 기업 상장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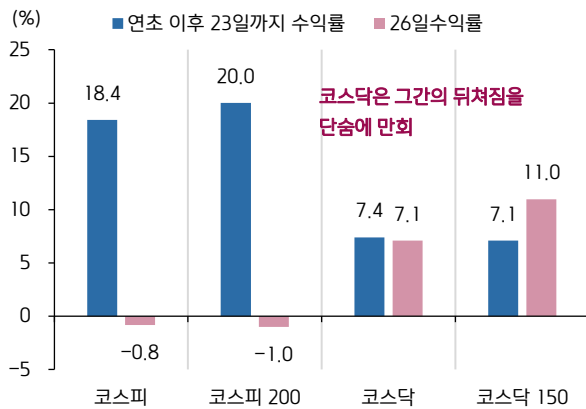
정책 기대감 이외에도, 이번 코스닥 랠리는 지난 2~3년에 걸친 소외현상이 누적된 데에 따른 키 맞추기 성격도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 일례로, 25년 연간 코스피 상승률은 75%에 달했던 반면, 연간 코스닥 상승률은 36%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의 성과를 따라잡지 못했던 상황. 26년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23일)까지 코스피는 18% 상승했으나 코스닥은 7% 상승하는 데 그쳤던 모습. 코스닥의 연간 30%대, 월간 7%대 상승률은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긴 함.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과 격차는 2011년 이후 최대로 벌어진 상태였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 정부 입장에서도 코스닥의 키 맞추기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임.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 코스닥 활성화 후속 정책 등이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관련 정책 기대감과 FOMO 심리는 코스닥 시장 내 잔존해 있을 전망이다. 코스닥의 이익 모멘텀(12개월 선행 영업이익 YoY, 12월 +22% -> 1월 +35%)도 양호한 만큼, 코스닥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 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기대감(신약 개발, 로봇 내러티브, 정책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코스닥 150 ETF를 통한 수급 풀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2거래일간 약 10% 폭등으로 코스닥 내 주도주(=시총 상위주)들의 차익실현 욕구도 커진 가운데, 코스닥의 선행 PER이 24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주 후반에 몰린 4분기 실적시즌, 매크로 이벤트를 치르면서 시장 색깔이 "중소형주 및 소외주 -> 대형주 및 주도주"로 다시 바뀔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후속 정책의 구체성 및 현실성을 확인한 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 더 나아가, 최근 수급 이탈이 발생한 코스피의 경우, 이익 컨센서스 상향 추세, 외국인 및 기관의 추가 매수 여력,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 상방 재료가 유효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코스피는 지난주 5,000pt 도달 후 숨 고르기 과정에 들어갔으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비중 확대 전략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이를 반영하여 당사는 연간 코스피 상단을 기존 5,200pt에서 6,000pt로 추가 상향).

연초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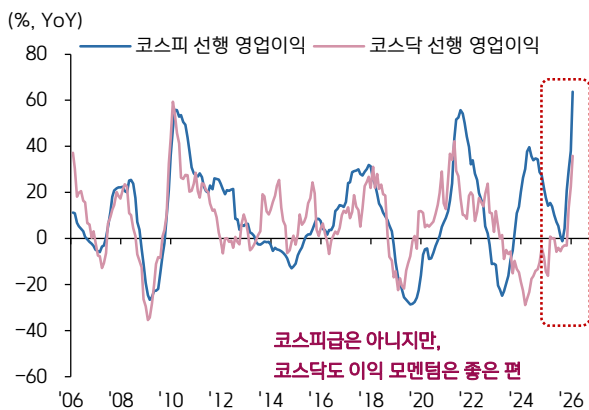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과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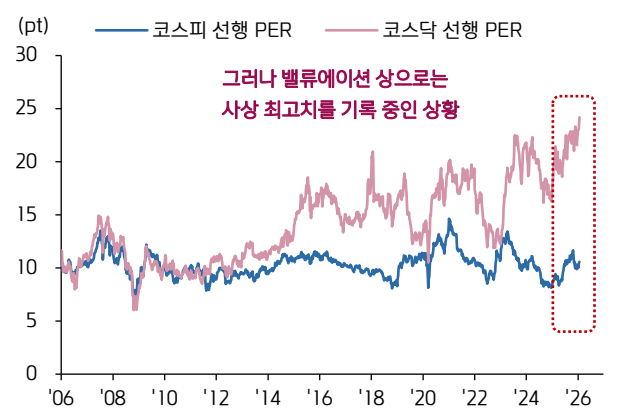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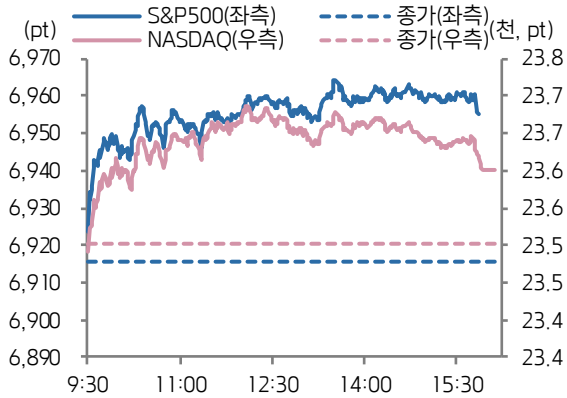
코스피와 코스닥의 선행 PER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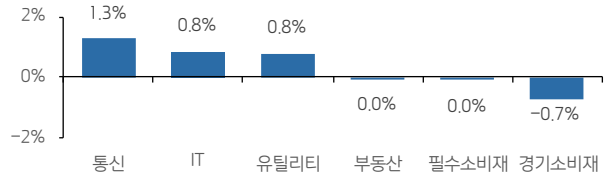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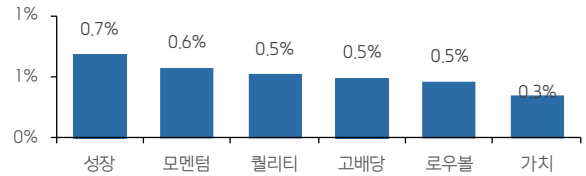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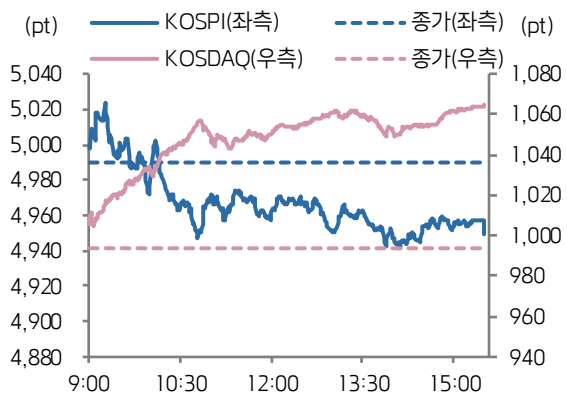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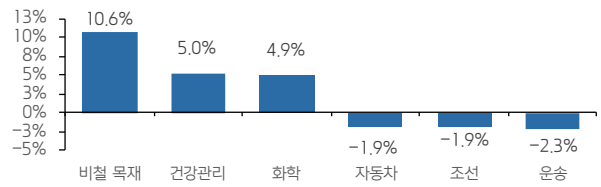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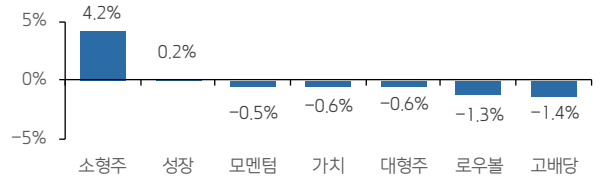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55.41	+2.97%	-6.05%	GM	79.43	-0.31%	-2.32%
마이크로소프트	470.28	+0.93%	-2.76%	일라이릴리	1,062.75	-0.14%	-1.11%
알파벳	333.26	+1.63%	+6.47%	월마트	117.64	-0.08%	+5.59%
메타	672.36	+2.06%	+1.86%	JP모건	301.04	+1.12%	-6.57%
아마존	238.42	-0.31%	+3.29%	엑손모빌	134.84	-0.1%	+12.05%
테슬라	435.20	-3.09%	-3.23%	세브론	167.50	+0.47%	+9.9%
엔비디아	186.47	-0.64%	-0.02%	제너럴일렉트릭	117.64	-0.1%	+5.6%
브로드컴	324.85	+1.5%	-6.14%	캐터필러	635.92	+1.48%	+11.01%
AMD	251.31	-3.22%	+17.35%	보잉	248.43	-1.48%	+14.42%
마이크론	389.09	-2.64%	+36.33%	넥스트에라	85.47	+0.8%	+6.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949.59	-0.81%	+17.45%	USD/KRW	1,443.90	-1.27%	+0.31%	
코스피200	720.04	-1%	+18.82%	달러 지수	97.06	-0.55%	-1.28%	
코스닥	1,064.41	+7.09%	+15.01%	EUR/USD	1.19	+0.44%	+1.14%	
코스닥150	1,838.95	+10.97%	+18.85%	USD/CNH	6.95	-0.01%	-0.39%	
S&P500	6,950.23	+0.5%	+1.53%	USD/JPY	154.18	-0.98%	-1.61%	
NASDAQ	23,601.36	+0.43%	+1.55%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9,412.40	+0.64%	+2.81%	국고채 3년	3.092	-3.8bp	+14.1bp	
VIX	16.15	+0.37%	+8.03%	국고채 10년	3.545	-3.5bp	+16bp	
러셀2000	2,659.67	-0.36%	+7.16%	미국 국채 2년	3.590	-0.4bp	+11.7bp	
필라. 반도체	7,927.04	-0.39%	+11.91%	미국 국채 10년	4.211	-1.4bp	+4.4bp	
다우 운송	18,160.46	-0.22%	+4.63%	미국 국채 30년	4.802	-2.4bp	-4.2bp	
상해종합	4,132.61	-0.09%	+4.13%	독일 국채 10년	2.867	-3.9bp	+1.2bp	
항생 H	9,147.21	-0.15%	+2.6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537.70	-0.94%	-4.32%	WTI	60.63	-0.72%	+5.9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5.59	-0.44%	+7.79%
Eurostoxx50		5,957.80	+0.16%	+2.87%	금	5,122.30	+2.1%	+17.11%
MSCI 전세계 지수		1,037.55	+0.15%	+2.26%	은	115.50	+13.98%	+63.6%
MSCI DM 지수		4,505.18	+0.11%	+1.69%	구리	602.05	+1.23%	+5.96%
MSCI EM 지수		1,501.11	+0.4%	+6.89%	BDI	1,762.00	+0.06%	-6.13%
MSCI 한국 ETF		117.32	-0.55%	+20.67%	옥수수	428.25	-0.52%	-2.7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2.50	-1.32%	+3.06%
비트코인		87,974.04	+1.72%	+0.37%	대두	1,061.75	-0.56%	+1.36%
이더리움		2,926.50	+3.93%	-1.72%	커피	356.25	+1.52%	+2.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